

호랑이여 '명품 야구'가 보고 싶다

팬들, 폭염 경보에도 만원 사례... 원정석 가득 메웠는데
1이닝 10실점·9회말 7실점...어이없는 패배에 실망만
흔들리는 1위에 '홈 100만 관중' 맥빠진 대기록 될수도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100만 관중과 줄어들지 않는 매직 넘버, 두 얼굴의 KIA 타이거즈다.

KIA는 올 시즌 관중석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8월 15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1만6545명이 찾으면서 77만6103명이라는 새로운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작성된 역대 최대 관중(77만3499명)기록을 넘어선 KIA는 16일에는 올 시즌 목표 관중으로 내세웠던 78만 1200명도 넘어섰다.

이후 안방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은 KIA의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이 경신되는 날이 됐다.

최대 매진 기록도 챔피언십도 가장 첫 해인 2014년의 7회를 넘어 지난 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10'으로 경신됐다.

10일 삼성과의 홈 경기까지 64경기에 92만5137명(평균 관중 1만4455명)이 찾으면서 100만 관중이라는 경이로운 목표에 7만 4863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홈경기는 8. 경기당 평균 9357명이 입장하면 100만 관중 고지를 돌파한다. 앞선 평균 관중 추이를 본다면 5경기 정도를 더 치르면 149만 도시를 연고로 하는 KIA의 역사적인 100만 관중 기록이 탄생하게 된다.

타이거즈의 1위 행진 속에 KIA 팬들은 폭염 경보에도 만원사례를 만들고, 예매 전쟁을 치르면서도 수도권 경기의 원정 관중석을 가득 채웠다.

1위 팀 팬 다운 열기와 응원이었지만 이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KIA의 후반기다.

시즌 종착점이 눈앞에 보이지만 1위 팀에 어울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매직 넘버 줄이기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경기를 패배로 뒤바꾸는 벤치의 운영 미스에 관중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9회말 7실점이라는 넥센전 끝내기 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KIA는 2연속 끝내기 패에 이어 13일 문학에서 1이닝 10실점이라는 충격적인 패를 기록했다. 5점의 리드 상황에서 최근 4경기에 모두 출석했던 김윤동이 또 마운드에 올랐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김윤동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동섭과 임창용까지 출격하고도 내야진의 아쉬운 수비까지 겹치면서 10실점이라는 충격적인 이닝이 만들어졌다.

전반기 뜨거운 화력에 가려져 있던 마운드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1위팀 KIA는 부끄러운 1위가 되고 말았다.

팬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앞서 반복했던 실책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패배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가을 잔치뿐만 아니라 올 시즌 이후까지도 격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KIA 마운드의 구슬 꿰기는 실패했다. 조급함과 불신 속에 성장을 멈춘 선수들과 과도한 역할을 맡아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로 KIA 마운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팬들이 100만 잔치라는 판은 깔아놨다. 판을 얹을지 잔치의 주인공이 될지, 차가운 시선이 KIA 덕아웃을 응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김기태 감독이 덕아웃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내일 러브투게더 데이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16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2017시즌 제 3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한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3억6900만원) 중 일부인 6420만원이 '광주 기아

YMCA 야구단'에 장학금 및 지원금으로 전달된다. 이날 경기 시구는 광주기아 YMCA 야구단 김서진이 하고, 시타는 러브투게더 우수 참여 직원인 장용진 기자(화성공장 조립2부)가 한다.

KIA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또 경기에서 앞서 끝나무 선수들에게 사인 유니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낯을 응원할 계획이다.

KIA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소연·렉시 톰프슨·박성현

에비앙 우승팬 세계1위

LPGA 올해의 선수상도 결정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14일 막을 올리는 에비앙 챔피언십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우승급 말고도 많은 것이 걸려있는 대회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과 톨레스 올해의 선수, 톨레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등의 구도가 모두 에비앙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미국 골프채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세계랭킹 1~3위인 유소연(27)과 렉시 톰프슨(미국), 박성현(24)은 에비앙 1·2라운드를 같은 조에서 치른다.

유소연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13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키게 되지만, 톰프슨과 박성현 가운데 누구라도 에비앙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 세계 골프 여제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

지난주 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성현으로부터 2위 자리를 되찾은 톰프슨은 유소연과 박성현의 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4위 이상만 하면 1위 등극을 노려볼 수 있다.

박성현의 경우 우승할 경우에만 1위 등극이 가능하다. 한 시즌에 열리는 5개의 메이저 대회 성적을 합산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수에게 주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자도 이번 대회에서 갈린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고, US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한 유소연이 현재 78점으로 1위이고,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한 차례씩 우승한 박성현과 김민경, 대니엘 강(미국)이 각각 60점으로 공동 2위다. 톰프슨은 올해 메이저에서 우승 없이 32점으로 뒤를 쫓고 있다. 세 선수 가운데 에비앙 우승 포인트 60점을 가져가면 누구나 최종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유소연



렉시 톰프슨



박성현

유소연과 톰프슨, 박성현은 톨레스 올해의 선수 순위에서도 나란히 1~3위다. 4위인 김민경까지 포함해 에비앙 우승자가 단숨에 1위로 등극해 올해의 선수상에 바짝 다가갈 수 있다.

신인상 수상이 유력한 박성현의 경우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으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에 이어 LPGA 역사상 두 번째로 단숨에 1위로 등극해 올해의 선수상에 바짝 다가갈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오픈 국제남자 테니스 내일 개막

챌린저급 32개국 300명 참가

남자 챌린저급 테니스 최강자를 가리는 2017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대회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광주 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며, 총상금 5만달러를 두고 세계 32개국 300여명이 열린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단식 예선 32드로, 본선 32드로, 복식은 16드로로 진행되는 광주챌린저는 80점의 우승점수까지 획득할 수 있어 놓칠 수 없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의 정상급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랭킹 73위인 호주의 조던 톨슨과 랭킹 128위 캐나다의 피터 폴란스키도 광주 챌린저 출전이 예고됐다. 특히 조던은 지난 2월 랭킹 63위까지 오르며 꾸준히 10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력자다.

123위의 피터 폴란스키 또한 지난 7월 캐나다에서 열린 'WINNIPEG NATIONAL BANK CHALLENGER'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로는 이덕희와 권순우가 출전해 우승을 향해 실력을 펼친다.

이덕희와 권순우의 경우 랭킹이 각각 163위이고 204위여서 이번 광주챌린저에서 우승해 획득하는 80점의 점수로 그랜드슬램 본선에 자동출전할 랭킹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정각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덕희는 지난 대회에 첫 출전해 8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였다. 한층 더 성숙해진 이덕희가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광주 출신의 신동학(국군체육부대)과 박준상(경산시청)이 와일드카드로 나선다.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국내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내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를 계획했다"며 "많은 테니스 동호인과 지역민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도	도시	국가	비고
1896	아테네	그리스	
1900	파리	프랑스	
1904	세인트루이스	미국	
1908	런던	영국	
1912	스톡홀름	스웨덴	
1916	베를린	독일	1차대전으로 취소
1920	안트워프	벨기에	
1924	파리	프랑스	두번째 개최
1928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932	로스앤젤레스	미국	
1936	베를린	독일	
1940	헬싱키	핀란드	2차대전으로 취소
1944	런던	영국	2차대전으로 취소
1948	런던	영국	두번째 개최
1952	헬싱키	핀란드	
1956	멜버른	호주	일본
1960	로마	이탈리아	
1964	도쿄	일본	아시아 첫 개최
1968	멕시코시티	멕시코	
1972	뮌헨	서독	
1976	몬트리올	캐나다	
1980	모스크바	소련	
1984	로스앤젤레스	미국	두번째 개최
1988	서울	한국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1996	애틀랜타	미국	
2000	시드니	호주	
2004	아테네	그리스	두번째 개최
2008	베이징	중국	
2012	런던	영국	세번째 개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2020	도쿄	일본	두번째 개최
2024	파리	프랑스	세번째 개최
2028	로스앤젤레스	미국	세번째 개최

올림픽 2024년 파리·2028년 LA서 개최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가 오는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을 차례로 개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3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제131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두 도시의 순차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IOC가 총회에서 하계올림픽 순차 개최 도시를 동시에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OC는 지난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2024년 올림픽을 파리에서, 2028년 올림픽은 LA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보스턴,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함부르크, 이탈리아 로마가 재정상의 이유로 유치를 중도에 포기하자 위기를 느낀 IOC는 파리와 LA에 모두 개최권을 주기로 했다.

상상 최초로 단독 후보로 나선 두 개

올림픽 개최지를 한꺼번에 결정하다 보니 과거 총회와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IOC 위원들은 투표에서 복수의 유치 후보 도시 중 하나를 택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IOC 집행위의 조율된 제안에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유치 희망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후 비밀투표로 이뤄지던 예전 결정방식과도 달랐다. 투표 후 긴장감 속에 IOC 위원장이 올림픽 유치지가 적힌 카드를 공개하던 일도 없었다. 바흐 위원장은 안 이 달고 파리시장에겐 2024 파리가 적힌 카드를,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게 2028 LA가 적힌 카드를 사이좋게 나눠줬다.

파리는 1900년, 19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LA도 1932년, 1984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최경주·배상문·안병훈 PGA CJ컵 출전

10월 19일 제주시 개막

최경주(47)와 배상문(31), 안병훈(26)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CJ컵에 출전한다.

CJ컵을 개최하는 CJ그룹은 14일 이들의 대회 출전 확정 소식을 전하며 "최경주, 배상문, 안병훈과 같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팬들뿐 아니라 어린 선수들에게도 평생 기억될 좋은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열리는 첫 PGA 투어 정규대회인 CJ컵은 10월 19일부터 나흘간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된다. 이미 저스틴 토머스(미국), 제이슨 데이, 애덤 스콧(이상 호주)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CJ컵 출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경주는 "CJ가 한국 팬들과 어린 선수들을 위해 최고의 대회를 만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PGA 투어 정규 시즌에 참여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훈 역시 "국내 선수가 우승한다면 한국과 아시아에서 골프가 더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회에는 총 78명이 출전한다. PGA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60명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5명, 아시아투어 2명에 10월 9일 기준 세계 랭킹 한국 선수 상위 3명, CJ 초청 선수 8명으로 구성된다.

안병훈은 세계 랭킹 상위 자격, 최경주와 배상문은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오게 된다.

/연합뉴스